

# 讀書에 관한 名言의 研究

## A Study of Wise Sayings Related to Reading

이 만 수(Man - Soo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4. 독서에 관한 명언 분석 |
| 2. 독서와 명언       | 5. 결론           |
| 3. 독서에 관한 명언 조사 |                 |

### 초 록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올바른 독서문화를 형성시키는데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서양 선각자들이 말한 독서에 관한 명언 138개를 문헌 조사하여 국가별로 나누어 내용과 말한 사람의 국적 및 직종, 업적 및 활동, 활동한 시기를 분석하였다. 조사된 독서 명언 속에는 독서의 의의(30%), 방법(44%), 효용(13%), 가치(12%), 즐거움(1%) 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독서의 명언을 말한 사람(83명)의 국적은 국력이 강하고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인 영국(36명), 프랑스(17명), 미국(15명)이 많고, 직종은 168개 분야 중에서 문학(97), 철학(20), 정치(13)분야 사람이 많다. 특히 문학분야 중에는 시인(25명)과 작가(24명), 소설가(18명)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했던 시기별로는 19-20세기 34%, 19세기 25%로 양 기간이 약 60%이다.

### ABSTR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ading, and with one motivation being to encourage an upright reading culture, 138 Wise Sayings related to reading by Western leader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and content as well as the nationalities and occupations, achievements and activities, and the periods of activity of the people who said them.

In Wise Sayings related to reading, there are connotations of reading's significance(30%), methods(44%), Usefulness(13%), values(12%), joys(1%), and so on, and the expressions vary according to the speakers' occupations.

Many of the speakers of wise sayings related to reading were from the powerful and culturally-developed countries of England(36), France(17), and the United states(15), and among 168 occupations, many were engaged in literature(97), philosophy(20), and politics(13). In the field of literature in particular, poets(24), writers(24), and novelists(19) comprised about 70% of the total. In terms of the periods of activity, the 19th-20th century with 33% and the 19th century with 27% made up 60% of the total.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접수일자 1998년 3월 11일

## 1. 序論

### 1. 1 研究의 目的

우리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출판물의 대량 생산과 유통이라 생각한다. 출판은 한 시대의 정신문화를 생산, 보존, 전승, 전파하는 핵심적 수단이요(범우사 기획실, 1995, 412), 출판물은 인간이 발명한 새로운 세계요, 가장 괄목할만 창조물이다. 또한 책의 세계는 마법의 세계이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그 세계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고은외, 1995, 3) 책은 사회속에서 생성·발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책은 개인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책과 독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왜 중요한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독서는 개인의 인성을 형성시키며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독서는 한 국가의 문화의 척도이며 사회발전이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독서는 모든 학술활동의 바탕이며 문화 창조와 인재양성의 큰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올바른 독서문화 형성은 중요한 일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독서교육 등 주로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여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에 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초·중·고등학교별로 독서지도 관련

단원 및 독서과목이 신설되어 독서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확대되고 교육개혁에서 말하는 평생학습 사회와 학생 중심 교육으로 가 고자 하는 시도라고 본다. 베이컨이 말한대로 책읽기는 충실한 사람을 만들고, 대화는 재치있는 사람,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전계서, 1995, 3) 때문에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독서에 관한 서양 선각자들이 말한 명언(짧은 글)을 조사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올바른 독서 문화를 형성시키기는 데에 하나의 동기를 부여함에 있다.

### 1. 2 研究의 方法

본 연구는 독서에 관한 서양 명언을 문헌 조사하여 국가별로 분류하고 명언의 핵심 내용, 말한 사람의 국적과 직종, 업적과 활동, 활동한 시기, 출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 讀書와 名言

### 2. 1 讀書의 意義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과 혼자서 대화하는 것이요 지식을 저축하는 것이며, 책 속의 글에 담긴 정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지적 활동이다. 또한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요 정신적인 만남이다. 독서는 정신적인 양식을 얻기 위한 행위이며 교양과 정서를 기르는 유익한 행위이다. 독

서는 문장을 통한 인간의 지적, 감정적인 활동인 동시에 독서활동은 문자를 지각하고 일정한 의미를 얻는 사회적, 심리적인 과정을 말한다.(김경일, 1980, 8) 독서는 생각을 넓혀 주고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독서의 참뜻은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저자의 인생관을 소화하여 인생의 폭을 넓혀 가는데 있는 것이다. 독서는 행복을 실어다 주는 나룻배와 같다. 독서는 전달 매체로서의 책과 문화 축적인 저장고로서의 책을 통한 지식 섭취 행위이기도 하다. 독서에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와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한 독서가 있다. 전자는 신문·잡지와 같은 것을 읽는 경우이며 후자는 지식을 얻는 것이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읽는 경우이다. 독서는 경험을 확대하고 인간 내면의 사고를 발굴하며 정보를 얻고 즐거운 세계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尾原淳夫, 1988, 15-16). 서정수 교수는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책 안 읽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말라. 책은 청운의 꿈을 이루는 열쇠이다. 독서는 선진 문화 국민의 증표다. 좋은 책은 최우선적으로 읽어야 한다.’(교양필독도서 선정위원회편, 1994, 13-19)라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9장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독서교육, 독서의 달 설정, 독서진흥 활동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독서는 사고 능력을 신장시켜 주며, 언어 능력을 높여 준다. 또한 독서력은 어떤 문장을 독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이다.(讀書指導研究會, 1982, 53) 독서는 현대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

보 획득의 수단으로 의의가 있다.

## 2. 2 名言의 意義

명언은 사리에 들어 맞는 훌륭한 말 또는 유명한 말을 가리키는데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인 격언을 포함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말한 짧은 말을 일컫는 개념이다. 격언은 처세상의 가르침과 계율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로서 금언·처세훈·잠언·경구·법언(法諺)이라고도 하며 명현(名賢)과 철인(哲人)들이 개인적이나 개성적으로 말한 것이다. 격언은 인간의 도덕규율, 행동규범을 짧게 표현한 말을 가리키는 프랑스어의 맥심(maxime)에 가까운 말이다.(상계서 2, 150) 논어를 보면 격언성법(格言成法)이라 하여 격을 ‘지당하다’라는 뜻으로 정의하여 격언을 ‘법칙이 될만한 지언(至言)’이라(학원출판공사, 세계백과대사전 1, 1987, 550)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양에서는 격언이란 말이 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 3. 讀書에 관한 名言 調査

독서에 관한 서양 명언을 조사하여 국가별로 분류하고 말한 사람의〈한글 명(원어 명) 생몰년, 국적, 직업 또는 직종〉, 핵심내용, 출처(①세계명언대사전 ②책은 읽히고 싶다 ③책한테 길을 물어 ④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⑤ 독서의 지식)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1 미국

(1) 출판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책은 읽지 말라. 유명한 책이 아니면 읽지 말라.

애호하는 책 이외는 읽지 말라.

〈에머슨(Emerson, Ralph Waldo) 1803-1882, 미국, 사상가·시인〉 독서 방법, ②p.379, ③p.179, ⑤p.152.

(2) 번역이 있는데 원문으로 책을 읽으려는 것은 보스턴으로 가는데 찰스강을 헤엄쳐서 건너 가려는 것과 같다.

〈에머슨〉 독서 방법, ②p.93, ④p.237, ⑤p.167.

(3) 좋은 책을 읽을 때면 나는 3천 년도 더 사는 것같이 생각된다.

〈에머슨〉 독서 가치, ②p.109, ④p.245, ⑤p.159.

(4) 같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 주는 것이다.

〈에머슨〉 독서 효용, ①p.796, ②p.45, ③p.187, ④p.246, ⑤p.167.

(5) 많이 읽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높은 존경은 문학에 대한 충분한 찬양이다.

〈에머슨〉 독서 가치, ①p.798.

(6) 사람은 독서를 잘하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야 한다.

〈에머슨〉독서 가치, ①p.799.

(7) 독서 후 일에 의욕을 불러일키는 책이면 모두 읽을 가치가 있다.

〈에머슨〉 독서 가치, ②p.73, ④p.247, ⑤p.154.

(8) 보기 드문 지식인을 만났을 적엔 그가 무슨 책을 읽는가 물어보아야 한다.

〈에머슨〉 독서 효용, ①p.798, ③p.176.

(9) 저작에도 창조적 저작이 있듯이 독서

에도 창조적 독서가 있다. 마음이 노력과 창의로 긴장해 있을 때엔 우리가 읽는 어떤 책의 페이지도 다양한 암시에 차서 영롱해진다.

〈에머슨〉독서 방법, ②p.163.

(10)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

〈프랭클린(Franklin, Benjamin) 1706-1790, 미국, 정치가·문필가·계몽사상가·과학자〉 독서 효용, ②p.53, ④p.238, ⑤p.172.

(11) 누구나 현대에 출판된 책을 꼭 읽어야 함은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세계를 알아야 할 중요성 에서다. 독서란 사람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밀러(Miller, Henry) 1891-1980, 미국, 소설가〉 독서 의의, ①p.265, ④p.235, ⑤p.157.

(12) 독서가 얼른 보기에는 창조와는 비슷하지 않은 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어떤 깊은 의미에서 비슷한 것이다.

〈밀러〉독서 의의, ②p.89, ④p.236, ⑤p.156.

(13) 가능하다면 되도록 적게 읽도록 하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의 행복, 엄밀하게 보람있는 행복만을 구현하는 기술을 배울 일이다.

〈밀러〉 독서 방법, ④p.241, ⑤p.162.

(14) 당신이 책에서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 책이 씌어진 그침명한 갈색의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책을 읽어야 함이 요구된다.

〈호돈(Hawthorne, Nathaniel) 1804-1864, 미국, 소설가〉 독서 방법, ③p.205.

(15) 모든 훌륭한 독서예호자들

은 잠자리에서 즐거움을 주고 향상시켜 주는 독서의 취미를 실천한다.

〈필드(Field, Eugene) 1850-1896, 미국, 시인·저어널리스트·유우머작가〉독서 가치, ① p.798.

(16) 훌륭한 독서 즉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책들을 읽는 것은 고상한 행동이다.

〈도로우 (Thoreau, Henry Davis) 1817-1862, 미국, 시인·수필가·자연주의자〉독서 효용, ①p.796, ③p.187, ⑤p.235.

(17) 책은 그것이 쓰여질 때처럼, 신중하고 절약해 가며 읽어야 한다.

〈도로우〉독서 방법, ①p.797.

(18) 우선 제1급의 책을 읽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읽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로우〉독서 방법, ③p.180.

(19) 독서는 일종의 탐험이어서 신대륙을 탐험하고 미개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

〈듀이(Dewey, John) 1859-1952, 미국, 철학자·교육학자〉독서 의의, ④p.234.

(20) 책을 많이 읽을수록 독서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독서광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한눈으로 여러 대목을 살펴며 읽어낸다. 그리고 요점만을 골라낸다. 그러므로 자기가 필요한 대목을 자기 스스로 인용할 수가 있다.

〈포우(Poe, Edgar Allan) 1809-1849, 미국, 시인·수필가·소설가·추리소설의 대가〉독서 방법, ④p.235, ⑤p.172.

(21)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다름이 없다.

〈에디슨(Edison, Thomas Alva) 1847-1931, 미

국, 발명가〉독서 효용, ④p.247.

(22) 단지 도착하기 위한 여행이라면 불쌍한 여행이며 그 책이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만을 알기 위한 독서라면 가련한 독서이다.

〈콜턴(Colton, Arthur Willis) 1868-1943, 미국, 시인·문필가〉독서 방법, ①p.797, ③P.195.

(23) 지나친 독서는 마음의 압박이며 본성의 초탈을 내버린다. 그것이 세상에 무감각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다.

〈펜(Penn, William) 1644-1718, 미국, 종교가(퀘이커교 창시자)〉독서 방법, ①p.798.

(24) 어느 정도의 인생 경험을 쌓지 않고서는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어느 만큼 깊이가있는 내용의 책이고 보면 적어도 그 내용의 일부를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파운드(Pound, Ezra) 1885-1972, 미국, 시인·평론가〉독서 방법, ⑤p.160.

(25) 고전이란 누구나 꼭 읽을 책으로 인정하려 들지만 실은 누구나 읽고 싶지 않은 책이다.

〈트웨인(Twain, Mark) 1835-1910, 미국, 소설가〉독서 방법, ②p.27, ⑤p.162.

(26) 어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고양시키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도구로서 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페이드먼(Fadiman, Clifton) 1904- , 미국, 비평가·방송극작가〉독서 의의, ②p.29.

(27) 독서는 도움을 받지 않는 발견과 마찬가지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에들러(Adler, Mortimer J.) 1902- , 미국, 저

술가)독서 의의, ②p.188.

### 3. 2 영국

(1)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사들만 하다.

<러스킨(Ruskin, John) 1819-1900, 영국, 비평가·사상가>독서 가치, ②p.88.

(2)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저자의 사상에 깊이 파묻히려는 것이다. 결코 독서하는 사람의 생각을 저자속에서 찾아내려는 때문이 아니다.

<러스킨>독서 의의, ②p.93, ④p.235, ⑤p.165.

(3) 인생은 짧다. 이 책을 읽으면 저 책은 읽을 수가 없다.

<러스킨>독서 가치, ②p.299, ⑤p.157.

(4) 인생은 매우 짧고 그 중에서 조용한 시간은 얼마 안되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가치 없는 책을 읽는데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러스킨>독서 방법, ①p.798, ②p.379, ⑤p.151.

(5) 사색하는 데 요령(기술)이 있는 것처럼 쓰는 데에도 요령(기술)이 있으며 독서하는 데에도 요령(기술)이 있다.

<디즈레일리(Disraeli, Beniamin) 1804-1881, 영국, 정치가·소설가>독서 방법, ①p.797, ②p.359, ④p.238, ⑤p.159.

(6) 오직 책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디즈레일리>독서 효용, ②p.105, ⑤p.159.

(7) 목적이 없는 독서는 산책일 뿐 독서가 아니다.

<리튼(Lytton, Bulwer) 1803-1873, 영국, 정치가·소설가·극작가>독서 의의, ②p.121, ②p.385, ④p.238, ⑤p.159.

(8) 과학에 관하여는 새로운 책을 읽도록 힘쓰고, 문학에 대해서는 오래된 책을 읽도록 힘쓰라. 고전문학은 항상 새롭다.

<리튼> 독서 방법, ②p.17, ④p.236, ⑤p.170.

(9) 좋은 책을 읽는 독자는 좋은 작가 만큼 드물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 William) 1564-1616, 영국, 극작가·시인> 독서 방법, ②p.135.

(10) 얼굴이 잘생기고 못 생긴 것은 운명의 탓이나, 독서나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셰익스피어>독서 효용, ②p.53, ④p.244, ⑤p.170.

(11) 모든 기초는 독서에 의하여 안정시켜야 한다. 모든 일반적 원칙은 책에서 얻어야 한다.

<존슨(Johnson, Samuel) 1709-1784, 영국, 시인>독서 의의, ②p.159.

(12) 진실로 읽고 싶다는 소망과 호기심이 있는 책을 읽으라.

<존슨>독서 방법, ②p.359, ⑤p.155.

(13) 독서는 흥미가 이끄는 대로 해야 한다. 과제로서 읽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즈웰(Boswell, James) 1740-1795, 영국, 전기작가·변호사>독서 방법, ①p.797.

(14) 무엇이든 하루에 다섯 시간 독서하라. 그러면 당신은 곧 박식하게 될 것이다.

<보즈웰>독서 방법, ①p.798, ④p.236, ⑤p.160.

(15) 독서만 하고 사고가 없는 사람은 그저 먹기만 하려는 대식가와 같다.

<실베스터(Sylvester, James Joseph) 1814-1897,

영국, 수학자)독서 방법, ②p.299, ④p.242, ⑤ p.169.

(16) 독서는 단순히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고의 힘이다.

〈로크(Locke, John) 1632-1704, 영국, 철학자·정치사상가)독서 효용, ①p.797, ②p.165, ③ p.185, 189, ④p.242.

(17) 사람은 늙어짐에 따라서 생활의 가치가 사는 중에 독서를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놀드(Anold, Matthew) 1822-1888, 영국, 시인, 비평가)독서 가치, ②p.187, ⑤p.168.

(18) 훌륭한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면 보물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라.

〈필딩(Fielding, Henry) 1707-1754, 영국, 소설가·시인)독서 의의, ②p.379.

(19) 부질없이 책을 읽는 것은 술을 급히 들이키는 것과 같다. 한 때는 고동치지만 심신을 수양하고 품성을 고귀하게 하는데는 무익하다.

〈스마일즈(Smiles, Samuel) 1812-1904, 영국, 작가·사회사업가)독서 방법, ②p.393, ④ p.243.

(20) 사람의 품격을 그가 읽는 책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그가 교제하는 벗으로 판단되는 것과 같다.

〈스마일즈)독서 가치, ②p.192, ④p.244, ⑤ p.169.

(21) 책을 읽고 싶어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과 읽을 만한 책이 탐난다고 하는 권태로운 사람과의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체스터튼(Chesterton, Gilbert Keth) 1874-1936,

영국, 소설가·시인·평론가)독서 방법, ② p.93.

(22) 인도의 보물을 준다해도 독서의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다.

〈기번(Gibban, Edward) 1737-1794, 영국, 역사가·정치가)독서 즐거움, ②p.52, ④ p.233, ⑤p.165.

(23) 독서만큼 매력있는 것은 또 없다.

〈시드니 스미스(Smith, Sydney) 1771-1845, 영국, 목사·수필가)독서 의의, ②p.109, ⑤ p.148.

(24) 독서와 정신과의 관계는 운동과 육체의 관계와 같다.

〈애디슨(Addison, Joseph) 1672-1719, 영국, 수필가·시인·정치가)독서 의의, ②p.151.

(25) 독서습관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유일한 즐거움이다. 모든 쾌락이 시들어도 이것은 지속된다.

〈트롤러프(Trollope, Anthony) 1815-1882, 영국, 소설가)독서 효용, ①p.797, ③p.186, ⑤ p.173.

(26) 사람들은 생활이 문제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독서가 문제다.

〈스미드(Smith, Logan Pearsall) 1865-1946, 영국, 문학가)독서 효용, ①p.797, ③p.183.

(27)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다.

〈버틀러(Butler, Samuel) 1835-1902, 영국, 소설가·문필가)독서 가치, ①p.799, ④p.243, ⑤p.160.

(28) 사람들은 다시 읽고 읽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수를 흡수한다고 믿고 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다. 만약 그들이 독서에 소비한 것과 같은 만큼의 시간을 읽는 글에 관해서 깊이 사색하지 않는다면 단지 저자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베네트(Bennett, Enoch Arnold) 1867-1931, 영국, 소설가〉독서 방법, ④p.241, ⑤p.161.

(29) 자기의 전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훌륭하게 독서하기는 불가능하다.

〈베네트〉독서 방법, ①p.797-798, ③p.196, ⑤p.161.

(30) 적어도 두 번 되풀이 해서 읽히지 않는 책은 뛰어날지도 않고 명저도 아니다.

〈베네트〉독서 방법, ③p.206.

(31) 독서에 소비한 만큼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소비하라.

〈베네트〉독서 방법, ③p.243.

(32) 무엇이거나 책을 사라. 사서 쌓아 두면 독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베네트〉독서 의의, ②p.71, ④p.245, ⑤p.177.

(33) 천천히 읽는 법을 배우라. 모든 다른 장점들이 적당한 곳에서 따라올 것이다.

〈워크(Walker, William) 1623-1684, 영국, 교육자〉독서 방법, ①p.798.

(34) 오늘 읽을 수 있는 책을 내일로 넘기지 말라.

〈잭슨(Jackson, Holbrook) 1874-1948, 영국, 수필가·편집자〉독서 방법, ②p.183, ④p.237, ⑤p.173.

(35) 독서는 종종 사색을 피하는 교묘한 방안이 된다.

〈헬프스(Helps, Sir Arthur)1813-1875, 영국, 역사가〉독서 효용, ①p.796.

(36) 나는 독서가를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무엇인가 외우려고 읽는 사람,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잊으려고 읽는 사람이다.

〈헬프스〉독서 의의, ②p.138, ④p.239, ⑤p.172.

(37) 어떤 책을 즐겁게 읽으려면 그 책이 당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몸(Maugham, William Somerset)1874-1965, 영국, 소설가·극작가〉독서 방법, ②p.195, ④p.239, ⑤p.146.

(38) 어떤 책이든 읽어서 즐겁지 않다면 그 책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몸〉독서 의의, ②p.43, ④p.235.

(39) 독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인간에 관한 일에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몸〉독서 방법, ②p.219, ④p.240, ⑤p.162.

(40) 독서하는 사람이 즐기는 특징은 그것이 늙어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정신적 취미라는 점이다.

〈몸〉독서 의의, ②p.259, ④p.244, ⑤p.159.

(41) 독서습관은 닥쳐올 인생의 여러가지 불행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몸〉독서 가치, ②p.135, ④p.246, ⑤p.157.

(42) 아침에는 일하기 전이므로 과학이나 철학과 같이 머리를 쓰는 책을, 일을 한 다음에는 약간 부드러운 내용의 책을, 오후에는 역사·수필·비평 혹은 전기 따위를, 저녁에는 소설이나 시집을, 밤에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 책을 읽는게 좋다.

〈몸〉독서 방법, ②p.45.

(43)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식사하는 것과 같다.

〈버크(Burke, Edmund) 1729-1797, 영국, 정치가〉독서 방법, ④p.236.

(44) 책을 읽고 의혹을 품으며 가볍게 업신여기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스코트(Scott, Sir Walter) 1771-1832, 영국, 시인·소설가〉독서 의의, ②p.121, ④p.239, ⑤p.169.

(45)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대화는 기지있는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베이컨(Bacon, Francis) 1561-1626, 영국, 철학자·정치가·수필가〉독서 효용, ②p.76, 137, ③p.189, ④p.243, ⑤p.161.

(46) 반대하거나 논박하기 위해서 독서하지 말라. 믿거나 삼키거나 화제의 씨로 삼기 위하여 읽지 말라. 오직 무슨 일을 생각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독서하라. 어떤 책은 그 맛을 음미해 보고 어떤 책은 삼켜 보고 어떤 소수의 책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

〈베이컨〉독서 방법, ④p.233, ⑤p.161.

(47) 심심풀이로 책을 읽는 사람과 마음에 허탈을 주지 않으려고 책을 읽는 사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처칠(Churchill, Winston Leonard Spencer) 1874-1965, 영국, 정치가·수상·작가〉독서 방법, ④p.245.

(48)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의 전부를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손에 들고 쓰다듬고 들여다 보며 아무데고 닥치는 대로 펴서 눈에 뜨인 문장부터 읽어보시오. 그 책을 책장에 꽂아 두고서 무엇이 써있는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책이 어디에 있

나를 알아 두고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시오.

〈처칠〉독서 방법 ③P.201.

(49) 독서의 참다운 기쁨은 몇 차례 그것을 다시 읽는 것이다.

〈로렌스(Lawrence, David Herbert), 1885-1930, 영국, 소설가·시인〉독서 즐거움, ②p.255, ③p.190, ④p.246, ⑤p.159.

(50) 나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으나 그래도 한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때는 독서로 인하여 얻은 것이다.

〈마콜리(Macaulay, Thomas) 1800-1859, 영국, 작가·평론가〉독서 효용, ③p.183.

(51) 저질의 책을 읽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브라이스(Bryce, James, Viscount Bryce) 1838-1922, 영국, 정치가·작가·사학자·법학자〉독서 가치, ①p.798, ②p.67, ⑤p.152.

(52) 한 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다시 읽을 가치가 있다.

〈존 모올리(Morley, John) 1838-1923, 영국, 정치가·문학가·저술가〉독서 가치, ②p.187, ⑤p.153.

(53) 나는 어떤 책이나 좋아 한다. 다만 형태는 책이면서 책이 아닌 것 (궁정행사록, 법규집, 인명록 등)을 빼고는 무슨 책이든지 즐겁게 읽을 수 있다.

〈램(Lamb, Charles) 1775-1834, 영국, 수필가·시인〉독서 방법, ②p.93.

(54) 나는 걸고 있지 않은 때는 독서하고 있다.

〈램〉독서 방법, ②p.77, ⑤p.169.

(55) 독서와 마음과의 관계는 운동과 몸과

의 관계이다.

<스틸(Steele, Sir Richard) 1672-1729, 영국, 수필가·정치가>독서 효용, ①p.796, ③p.186, ⑤p.169.

(56) 좋은 책을 처음 접하면 새 친구를 얻는 듯하다. 전에 잘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

<골드스미스 (Goldsmith, Oliver) 1730-1774, 시인·수필가·극작가 >독서 의의, ②p.113.

(57) 독서 음악 시가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려는 일은 장기간에 걸쳐서 확립된 사회적 결합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며, 그 취미 자체가 사회적 감정 공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스펜서(Spencer, Herbert) 1820-1903, 영국, 철학자·사회과학자·작가>독서 의의, ②p.227, ⑤p.169.

(58) 원래 나는 구두점을 많이 사용해서 읽는 속도를 늦춰 보려고 하는 편이다. 내가 쓴 글이 천천히 읽혀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읽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Ludwig) 1889-1951, 영국, 철학자>독서 방법, ④p.235.

(59) 읽고 표해 두고 배우고 마음속으로 소화시켜라.

<영국국교 기도서에서>독서 방법, ①p.798.

### 3. 3 프랑스

(1) 책을 읽는 태도에는 3가지가 있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줄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스

스로 구별하는 태도이다.

<라 브뤼예르(La Bruyere, Jean de) 1645-1696, 프랑스, 모랄리스트>독서 방법, ③p.16, ④p.241, ⑤p.156.

(2) 잡서를 난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익을 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된다.

<마르탱 뒤가르(Martin Du Gard, Roger) 1881-1958, 프랑스, 소설가·극작가>독서 방법, ②p.181.

(3) 독서는 천천히 해야 하는 것이 첫째 법칙이다. 이것은 모든 독서에 적용된다. 이것이야말로 독서의 기술이다.

<파게(Faguet, Emile) 1847-1916, 프랑스, 비평가>독서 방법, ②p.135, ⑤p.172.

(4) 독서의 적의 하나는 바로 인생 그 자체이다. 인생은 독서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인생은 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심, 사랑, 인색, 증오, 특히 정치적 적대와 질투, 뭔가를 읽으려는 생각조차 독서와 멀리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파게>독서 의의, ②p.215.

(5)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이해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파게>독서 의의, ②p.142.

(6) 다급하게 책을 읽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좋은 책을 천천히 읽어 나갈 때의 묘미를 알지 못한다.

<롤랑(Rolland, Romain) 1866-1944, 프랑스, 소설가·극작가·평론가·음악연구가> 독서 방법, ②p.53, ④p.237, ⑤p.166.

(7) 날마다 반시간이라도 무엇인가 사색하고 독서하라.

<롤랑>독서 방법, ②p.271, ⑤p.166.

(8) 독서에는 우연이란 없다. 나의 독서의 원천은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파스칼, 라신느, 지드 등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것은 지하에서의 동일한 위치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모리악(Mauriac, Francois) 1885-1970, 프랑스, 작가·시인>독서 의의, ②p.359, ⑤p.162.

(9) 고인(古人)의 책은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

<데카르트(Descartes, Rene) 1596-1650, 프랑스, 철학자·수학자·물리학자>독서 가치, ④p.236, ⑤p.145.

(10)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독서 의의, ③p.181, ⑤p.158.

(11) 나는 1시간의 독서로 누구러지지 않은 어떤 슬픔도 경험하지 못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 Charles Louies de Secondat) 1689-1755, 프랑스, 사상가·판사>독서 효용, ①p.797, ③p.185, ④p.234, ⑤p.163.

(12) 독서를 즐기는 것은 권태로운 시간을 환희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이다.

<몽테스키외>독서 의의, ④p.244, ⑤p.158.

(13) 비평가란 타인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생트 뷔브(Sainte-Beuve, Charles Augustine) 1804-1869, 프랑스, 시인·비평가·작

가>독서 의의, ②p.93, ④p.239, ⑤p.170.

(14) 아름다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이 우리와 속삭이며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대답하는 끊임없는 대화이다.

<모르와(Mauoris, Andre) 1885-1967, 프랑스, 소설가·수필가·전기작가>독서 의의, ④p.234.

(15) 독서는 정신을 작용시키기는 하나, 그 동안에 육체 쪽은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다.

<몽테뉴(Montaigne, Michalde) 1533-1592, 프랑스, 철학자·수필가>독서 의의, ②p.23, ④p.240, ⑤p.164.

(16) 나는 독서할 때 어려운 곳에 부딪쳐도 손톱을 씹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일은 없다. 한 두 번 생각해 보고 알 수 없을 때에는 포기하고 만다. 그 난해한 곳에 집착하면 자기와 시간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몽테뉴>독서 방법, ②p.177, ④p.243, ⑤p.163.

(17) 독서같이 값싸게 주어지는 영속적인 쾌락은 또 없다.

<몽테뉴>독서 효용, ②p.373, ④p.235, ⑤p.163.

(18) 독서는 온갖 문제를 제공하여 나의 추리를 환기시키며 또 기억력을 쓰지 않고 나의 판단력을 움직임으로써 도움을 준다.

<몽테뉴>독서 효용, ③p.188.

(19) 너무 급하게 읽거나 천천히 읽을 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파스칼(Pascal, Blaise) 1623-1662, 프랑스, 수학자·과학자·사상가>독서 방법, ④p.243.

(20) 육체는 슬프다. 아아, 나는 만권의 책

을 읽지 못한다.

〈말라르메(Mallarme, Stephane)1842-1898, 프랑스, 시인〉독서 방법, ②p.276, ④p.245, ⑤ p.162.

(21) 어리석은 사람은 이름난 작가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찬미한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읽는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 시인·역사가·철학자·극작가·비평가〉독서 방법, ③ p.180.

(22)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영혼을 위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책을 진실로 공을 들여서 세밀하게 읽은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도 50명을 넘지 못한다.

〈볼테르〉독서 방법, ④p.242, ⑤p.162.

(23) 독서는 작품이 작품으로 되게끔 하는 행위이나, 되게끔 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부가하지 않는다. 있는 그 대로를 존재시킨다.

〈블랑쇼(Blanchot, Maurice) 1907 - , 프랑스, 작가·비평가〉독서 의의, ④p.241, ⑤p.160.

(24) 글은 곧 사람이다.

〈뷔퐁(Buffon, Comte Georges Louis Leclerc de) 1707-1788, 프랑스, 생물학자·작가·철학자〉독서 의의, ②p.241.

(25) 훌륭한 예술가에게는 자연의 전부가 아름답다. 그의 눈동자는 모든 보이는 것이 진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마치 책을 펴서 읽듯이 쉽게 거기서 온갖 진실을 읽어낸다.

〈로댕(Rodin, Francois Auguste Rene) 1840-1917, 프랑스, 조각가〉독서 방법, ② p.359.

(26) 읽는 기술은 이미 있는 무엇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모든 독서는 언제나 하나의 재 창조이다. 독서는 끊임없는 발견이고 이미 새롭게 행해지는 탐험이다.

〈가이 미쇼(Michaud, Guy) 1879-1955, 프랑스, 문학사가〉독서 의의, ②p.194.

### 3. 4 독일

(1)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수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rthur) 1788-1860, 독일, 철학자〉독서 방법, ②p.169, ⑤ p.171.

(2) 나쁜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좋은 책을 읽기 위한 조건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쇼펜하우어〉독서 방법, ②p.77, ④p.236, ⑤ p.170.

(3)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나쁜 책을 읽지 않을 일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읽지 않고 지나는 기술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독서 방법, ②p.205, ⑤p.152.

(4)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케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한다.

〈쇼펜하우어〉독서 의의, ②p.385, ④p.233.

(5) 줄곧 열중하여 독서하다가 나중에 독서하는 일이 없으면 읽은 자료는 뿌리를 뺏지 못하고 대개는 소멸되고 만다.

〈쇼펜하우어〉독서 의의, ④p.238.

(6) 그들은 독서로 인해 스스로를 우매하

게 만들었다.

〈쇼펜하우어〉독서 효용, ③p.182.

(7) 약서는 읽지 않으려고 해도 자주 접촉하게 되지만, 양서는 꼭 읽으려 해도 뒤로 밀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독자들의 현실이다.

〈쇼펜하우어〉독서 방법, ⑤p.171.

(8)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읽는다고 말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독서 방법, ②p.35.

(9) 독서는 자기의 머리로써가 아닌 타인의 머리로써 사색하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독서 의의, ②p.35, ⑤p.170.

(10)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살 수 있다면 말이다.

〈쇼펜하우어〉독서 의의, ②p.258, ⑤p.170.

(11) 고전 작가들이 쓴 책 중의 하나를 읽고 있으면 곧 정신이 신선해지고 기분도 가벼워진다. 마음은 맑아지고 고양된다. 이것은 마치 나그네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

〈쇼펜하우어〉독서 의의, ②p.49.

(12)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괴테 (Goethe, Johann Wolfgang Von) 1749-1832, 독일 · 시인 · 소설가 · 극작가 · 정치가 · 과학자〉독서 방법, ②p.67, ④p.233, ⑤p.157.

(13) 읽는 것은 빌리는 것을 말한다. 독서하고 창작하는 것은 자기가 진 빛을 갚는 것이다.

〈리히텐베르크(Lichtenberg, Georg Christoph)

1742-1799, 독일, 물리학자 · 교수 · 비평가〉독서 의의, ①p.796, ②p.71, ③p.188, ⑤p.175.

(14) 나는 한가하게 독서하는 한가한 사람을 증오한다.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 독일, 철학자 · 시인〉독서 의의, ②p.108, ④p.236.

(15)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도 읽을 가치가 없다.

〈베버(Weber, Max) 1864-1920, 독일, 사회학자 · 경제학자〉독서 가치, ②p.349, ⑤p.154.

(16) 신문만을 읽거나 또는 매우 훌륭한 환경에서도 현대 작가들의 책만을 읽는 사람들은 근시안이면서도 안경을 떨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

〈아인슈타인(Einstein, Albert) 1879-1955, 독일, 물리학자〉독서 의의, ②p.128.

(17) 독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헤르만 헷세(Hesse, Herman) 1877-1962, 독일, 작가〉독서 의의, ②p.178.

(18) 독서는 결코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헷세〉독서 방법, ②p.198.

### 3. 5 기타 국가

(1)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들여라. 남이 애써서 얻은 것에 의해 쉽게 자기를 개선할 수가 있다.

〈소크라테스(Sokrates) BC 470- 399, 그리스, 철학자〉독서 방법, ④p.245.

(2) 많이 읽어라. 그러나 많은 책은 읽지 마라.

〈플리니우스(Plinius, Gaius (Caecilius Secundus) 62?-114?, 로마, 정치가·문필가〉독서 방법, ① p.798.

(3) 독서는 하나의 창조과정이다.

〈에렌부르크(Ehrenburg, Ilya Grigoryevich) 1891-1967, 러시아, 작가〉독서 의의, ①p.157, ④ p.234, ⑤p.168.

(4) 때로 독서란 독자를 가르친다라기보다 그들의 머리를 도리어 산만하게 한다. 덮어 놓고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몇몇 좋은 저자의 책을 골라 읽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톨스토이(Tolstoi, Lev Nikolaevich) 1828-1910, 러시아, 소설가·도덕철학자〉독서 방법, ④ p.241.

(5) 나쁜 독서는 나쁜 교제보다 더 위험하다.

〈힐티(Hilty, Carl) 1833-1909, 스위스, 철학자·법학자〉독서 의의, ②p.164.

(6) 좋아 하는 책은 독서로 위락과 용기를 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서 지혜와 사고력을 길러준다.

〈고리아(Gorrio, Tobia) 1842-1918, 이탈리아, 시인〉독서 의의, ②p.153, ⑤p.164.

(7) 책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아퀴나스(Aquinas, St. Thomas) 1225-1274, 이탈리아, 수도사·신학자〉독서 가치, ①p.320.

(8) 이용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되 전부를 삼켜 버리지 말고 한 가지를 무엇에 이용할 것 인가를 알아두어야 한다.

〈입센(Ibsen, Henrik) 1828-1906, 노르웨이, 시인·극작가〉독서 방법, ①p.797, ②p.239, ④ p.240, ⑤p.167.

#### 4. 讀書에 관한 名言 分析

독서에 관한 서양 명언을 국적에 따라 나누면, 미국 27개, 영국 59개, 프랑스 26개, 독일 18개, 기타 각국 8개로 모두 138개이다. 국가별로 독서에 관한 명언 내용, 말한 사람의 국적과 직종, 말한 사람의 업적과 활동, 말한 사람의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4.1 名言 內容 分析

###### (1) 미국

미국인이 말한 27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그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인이 말한 조사된 명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상가이며 시인이기도 한 에머슨은 출판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책과 유명하지 않은 책, 애호하지 않은 책은 읽지 말라고 당부하고, 번역이 있으면 번역을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오래 사는 것과 같이 생각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존경받으며, 같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서로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읽은 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고, 지식인을 만났을 때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물어 볼 것을 권장하였다. 정치가이며 사상가·과학자이기

순서	핵심 내용	명 언 명	명언 수	비율(%)
1	독서 의의	(11), (12), (19), (26), (27), (24)	5	19
2	독서 방법	(1), (2), (9), (13), (14), (17), (18), (20), (22), (23), (24), (25)	12	44
3	독서 효용	(4), (8), (10), (16), (21)	5	19
4	독서 가치	(3), (5), (6), (7), (15)	5	19
합계			27	

또한 프랭클린은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들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고 피력하였다. 소설가 밀러는 독서는 창조라고 강조하고, 가능하면 적게 읽으라고 하면서 독서를 밥먹고 운동하는 것이 비유하였고, 소설가 호오돈은 새벽 시간에 사색과 더불어 독서하라고 주장하였다.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이고 유우며 작가인 필드는 진정한 독서애호가인 잠자리에서 즐거움을 주는 독서의 취미를 실천한다고 하였고, 자연주의자이자 시인이자 수필가인 도로우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책을 읽는 것이 고상한 행동이며, 책이 쓰여질 때

처럼 신중하게 독서하고 제1급의 책 즉 훌륭한 책을 읽기를 권하였다. 실용주의 교육학자이며 철학자인 존 듀이는 독서를 일종의 탐험으로 간주하였고, 시인이자 수필가이고 추리소설의 대가인 포우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독서력이 늘어남을 주장하였으며, 발명가 에디슨은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운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고 하였다. 시인이자 문필가인 콜턴은 책 내용의 끝맺음을 읽기 위한 독서는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웨이커교의 창시자인 펜은 지나친 독서를 비판하였으며, 시인이자 평론가인 파운드는 인생경험을 쌓아야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소설가 트웨인은 고전은 읽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누구나 읽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비평가이자 방송극작가인 페이디먼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고양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애들러는 독서를 도움을 받지 않은 발견과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사에 비유하였다.

## (2) 영국

영국인이 말한 59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그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인이 말한 조사된 명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상가이며 비평가인 러스킨은 독서를 저자의 사상에 깊이 파묻히려는 것이라고 했고, 인생의 짧음을 아쉬워 하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구입해야 하며 읽으라고 강조하였고, 소설가이며 정치가인 디즈레일리는 독서요령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고 주장하였다. 소설가·극작가·정치가인 리튼은 과학은 새로운 책, 문학은 오래된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목적이 없는 독서는 산책일 뿐 독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극작가이며 대 문호라고 칭하는 셰익스피어는 미모는 운명의 탓이

순서	핵심 내용	명 언 명	명언 수	비율(%)
1	독서 의의	(2),(7),(11),(18),(23),(24),(32),(36),(38),(40),(44),(56),(57)	13	22
2	독서 방법	(4),(5),(8),(9),(12),(13),(14),(15),(19),(21),(28),(29),(30),(31), (33),(34),(37),(39),(42),(43),(46),(47),(48),(53),(54),(58),(59)	27	46
3	독서 효용	(6),(10),(16),(25),(26),(35),(45),(50),(55),	9	15
4	독서 가치	(1),(3),(17),(20),(27),(41),(51),(52)	8	14
5	독서 즐거움	(22),(49)	2	3
합계			59	

나 노력에 의하여 독서나 독서의 힘이 갖추어진다고 하였고, 시인 사무엘 존슨은 읽고 싶은 소망과 호기심이 있는 책을 읽으라고 권하였고, 전기작가이며 변호사인 보즈웰은 무엇이든 하루에 5시간 독서하면 박식하게 될 것이며, 과제로 읽는 독서는 유익하지 못하니 흥미가 이끄는 대로 독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학자 실베스터는 독서만 하고 사고하지 않는 사람과 먹기만 하는 대식가에 비유하였고, 철학자이며 정치사상가인 로크는 독서는 지식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사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인이며 비평가인 아놀드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독서의 유무에 따라 생활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했고, 소설가이며 시인인 필딩은 훌륭한 참된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과 보물을 찾는 것을 비유하였으며, 작가이며 사회사업가인 스마일즈는 부질없이 책을 읽는 것을 술을 급히 들이키는 것에 비유하고, 수양하고 품성을 고귀하게 하는데 무익하다 함과 읽는 책으로서 그 사람의 품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설가이며 평론가인 체스터튼은 독서에 열의가 있는 사람과 독서할 만한 책이 탐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

으며, 역사가이며 정치가인 기번은 인도의 보물을 주어도 독서의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며, 수필가이며 정치가인 스틸과 수필가·시인·정치가인 에디슨은 독서와 정신과의 관계를 운동과 육체의 관계에 비유하였다. 소설가인 트롤러프는 모든 쾌락은 시들어도 독서 습관은 유일한 즐거움으로 시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문학가인 스미드는 자기의 문제는 생활이 아니라 독서라고 하였다. 소설가이며 문필가인 버틀러는 읽어야 할 것은 말보다 숨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소설가 베네트는 훌륭한 독서는 전력을 다하는 것이며, 독서에 소비한 만큼의 시간을 생각하는 데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되풀이 해서 읽히는 책이 명저라고 주장하였다. 워크는 교육자 답게 독서는 천천히 하라고 하였고, 수필가이며 편집자인 잭슨은 오늘 읽을 책을 내일로 넘기지 말라고 하였으며, 역사가 헬프스는 독서는 사색을 피하는 교묘한 방안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 독서가를 외우려고 하는 사람과 잊으려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소설가 몸은 독서인의 특징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정신적 취미이며, 독서습관은 인생의 불행으로 부터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아침에는



머리를 쓰는 책인 과학과 철학을, 일을 한 다음에는 부드러운 내용의 책을, 오후에는 역사·수필·비평·전기를, 저녁에는 소설이나 시집을, 밤에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은 책을 읽는 것이 좋으며 책을 즐겁게 읽으려면 직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독자는 인간에 관한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가 버크는 생각하지 않고 독서하는 것을 씹지 않고 식사하는 것에 비유하였고, 시인이며 소설가인 스코트는 책을 읽고 의혹을 품고 가볍게 업신여기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철학자 베이컨은 독서는 충실한 사람, 회의는 의지가 굳센 사람, 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들고, 반대와 논박 그리고 믿거나 삼키거나 화제로 삼기 위한 독서는 삼가고, 생각하고 연구하기 위한 독서를 하며 방법은 음미하고 삼키고 잘 씹어 소화하라고 주장하였다. 정치가이며 작가인 처칠은 책의 전부를 읽지 못해도 눈에 뜨인 문장부터 읽으라고 하고, 읽는 목적이 다른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보았고, 책과 친구가 되라고 권하였다. 소설가이며 시인 로렌스는 독서의 참다운 기쁨은 여러번 읽는 것이라고 하였고, 작가이며 평론가인 마콜리는 생애 중 가장 행복한 것은 재산, 명예, 권력보다도 독서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가이며 작가·사학자·법학자인 브라이스는 저질의 책을 읽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피력하였고, 정치가이며 저술가인 존 모올리는 한 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다시 읽을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수필가이며 시인인 차알스 램은 자신은 어떤 책이든 좋아하고 형태보다

내용에 충실한 책을 즐겁게 읽으며 걷는 때를 제외하고는 독서한다고 하였다. 정치가이며 수필가인 스틸은 독서와 마음과의 관계를 운동과 몸과의 관계로 비유하였고, 시인이며 수필가·극작가인 골드스미스는 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나는 듯하고 철학자이며 사회과학자·작가인 스펜서는 독서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일은 장기간에 걸쳐서 확립된 사회적 결합이 있어 가능하다 하였다. 또 현대 분석 철학의 대표적 철학자이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수를 역임한 비트겐슈타인은 독서할 때는 속도를 늦추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구두점을 많이 사용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국국교 기도서에는 읽고 표해 두고 배우고 마음으로 소화시키라는 글귀가 있다.

### (3) 프랑스

프랑스인이 말한 26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그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인이 말한 조사된 명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럴리스트인 라 브뤼에르는 책을 읽는 태도 3가지를 소개했는데 스스로 이해 못하는 태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줄 아는 태도, 이해할 부분과 이해 못한 부분을 구별하는 태도이다.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마르탱 뒤가르는 잡서의 난독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라고 주장하였고, 비평가인 파게는 독서의 기술은 천천히 읽는 것이라고 피력하였으며, 문학자 롤랑은 날마다 반 시간이라도 사색하고 독서하라고 권하면서, 다급하게 읽지 말고 천천히 읽으라고 당부하였다. 작가이자

순서	핵심 내용	명 언 명	명언 수	비율(%)
1	독서 의의	(4),(5),(8),(10),(12),(13),(14),(15),(23),(24),(26)	11	42
2	독서 방법	(1),(2),(3),(6),(7),(16),(19),(20),(21),(22),(25)	11	42
3	독서 효용	(11),(17),(18)	3	12
4	독서 가치	(9)	1	4
합계			26	

시인인 모리악은 독서에는 우연이 없고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철학자이며 수학자·물리학자인 데카르트는 고인(古人)의 책은 읽을 가치가 있으며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상가이자 판사인 몽테스키외는 독서를 즐기는 것은 권태로운 시간을 환희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이며,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고 하면서, 1시간의 독서로서는 어떤 슬픔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독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시인이며 비평가인 생트 뷔브는 비평가를 타인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하였고 소설가이며 수필가·전기 작가인 모르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이 우리와 속삭이며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대답하는 대화라고 주장하였다. 철학자이며 수필가인 몽테뉴는 독서할 때 난해한 곳에 집착하면 누 구나 자기와 시간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며, 독서는 추리를 환기시키며 기억력을 쓰지 않고 판단력을 움직여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독서가 정신을 작용시키는 하나 육체는 피곤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학자이며 과학자·사상가인 파스칼은 너무 급하게 읽거나 천천히 읽으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시인인 말

라르메는 만권의 책을 읽지 못하여 육체가 슬프다고 한탄하였으며, 시인이며 역사가·철학자·극작가·비평가이기도 한 볼테르는 성경을 읽어 영혼을 의탁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실로 공을 들여 세밀하게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름난 작가라 해서 찬미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읽는다고 하였고, 작가이며 비평가인 블랑쇼는 독서는 작품으로 되게한다라기 보다 그 작품을 그대로 존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생물학자이며 작가·철학자인 뷔퐁은 글은 곧 사람이라고 주장하였고, 조각가 로댕은 예술가의 눈동자는 보이는 진실을 받아들여 책을 펴 읽듯이 쉽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읽어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학사가인 가이미쇼는 모든 독서는 하나의 재 창조이며 끊임없는 발견이고 새롭게 행지는 탐험이라고 주장하였다.

#### (4) 독일

독일인이 말한 18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그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인이 말한 조사된 명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독서한 내용의 간직과 먹은 음식 간수를 비유하였고, 좋은

순서	핵심 내용	명 언 명	명언 수	비율(%)
1	독서 의의	(4), (5), (9), (10), (11), (13), (14), (16), (17)	9	50
2	독서 방법	(1), (2), (3), (7), (8), (12), (18)	7	39
3	독서 효용	(6)	1	6
4	독서 가치	(15)	1	6
합계			18	

책을 읽기 위하여 나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고, 좋은 책을 읽기 위하여 나쁜 책을 읽지 않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하며, 독서는 계속해서 하여야 효과 있고, 독서로 인해 우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약서는 읽지 않으려고 하여도 자주 접촉하게 된다. 또한 양서는 많이 읽을수록 좋으며, 책을 사서 읽는 시간이 있으면 더욱 좋고, 고전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 정신이 신선해지고 맑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시인이며 소설가·극작가·정치가·과학자이기도 한 괴테는 독서하는 방법을 80 평생 배웠는데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물리학자이며 비평가인 리히텐 베르크는 독서하고 창작하는 것은 자기의 빛을 갠 것이라고 하였다. 철학이며 시인인 니체는 한가하게 독서하는 한가한 사람을 증오하며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 베버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당부하였고, 또한 독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신문이나 현대작가들의 책만을 읽으면 근시안적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작가인 헷세는

독서를 기분 전환에 머물게 해서는 안되며,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서를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였다.

(5) 기타 국가

기타 국가인이 말한 8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그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 국가인이 말한 조사된 명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남을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들이면 남이 애써 얻은 것으로 자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고, 로마 정치가이며 문필가인 플리니우스는 많이 읽되 많은 수효의 책은 읽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러시아 작가인 에렌브르그는 독서를 하나의 창조과정으로 보았고, 러시아 소설가이며 도덕철학자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덮어놓고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좋은 저자의 책을 읽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여 다독보다 정독의 유익함과 양서의 중요성을

순서	핵심 내용	명 언 명	명언 수	비율(%)
1	독서 의의	(3),(5),(6)	3	38
2	독서 방법	(1),(2),(4),(8)	4	50
3	독서 가치	(7)	1	12
합계			8	

강조하였다. 스위스 철학자이며 법학자인 힐티는 나쁜 도서는 나쁜 교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탈리아시인 고리아는 좋아하는 책은 독서를 통해서 위락과 용기를 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서 지혜와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이탈리아 신학자이며 수도사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책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였고, 노르웨이 시인이자 극작가인 입센은 이용을 염두에 두고 독서하라고 권하였다.

#### 4. 2 名言을 말한 사람의 國籍과 職種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의 국적을 보면 총 83명 중에서 미국인 15명, 영국인 36명, 프랑스인 17명, 독일인 7명, 기타 8명이다.

미국인 15명을 주요 직종 분야별로 분류하면 총 29개 분야 중에 문학분야 18명(시인 6, 소설가 3, 추리소설 1, 수필가 2, 문필가 2, 유머 작가 1, 평론가 1, 비평가 1, 방송극작가 1), 사상가 3명(사상가 2, 철학자 1), 교육학자 1명, 과학자 1명, 정치가 1명, 종교가 1명, 발명가 1명, 저술가 1명, 저어널리스트 1명, 자연주의자가 1명이다. 미국에서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책과 관련이 많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62%로 가장 많으며 사상가가 10%, 교육자 등 기타가 28%이다. 문학분야 사람 중에는 시인이 33%로 가장 많고 소설가가 22%이며 수필가와 문필가가 각각 11%이다. 영국인 36명을 주요 직종 분야별로 분류하면 총 72개 분야 중에 문학분야 44명(시인 10, 소설가 10, 수필가 7, 작가

5, 극작가 4, 비평가 2, 문학자 2, 평론가 2, 전기작가 1, 문필가 1), 정치가 10명, 철학분야 6명(철학자 4, 사상가 1, 정치사상가 1), 역사가 3, 목사 1명, 저술가 1명, 편집자 1명, 교육자 1명, 변호사 1명, 수학자 1명, 법학자 1명, 사회과학자 1명, 사회사업가가 1명이다. 영국에서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은 독서에 관련이 가장 많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61%로 가장 많으며 정치가 14%, 철학분야가 8%, 역사가 4%, 목사 등 기타가 13%이다. 문학분야 사람 중에는 시인과 소설가가 각각 23%로 가장 많고, 수필가가 16%, 작가 분야가 23%를 차지하고, 비평분야가 9%이다. 프랑스인 17명을 주요 직종 분야별로 분류하면 총 39개 분야 중에 문학분야 23명(시인 4명, 작가 4명, 비평가 4명, 평론가 1명, 소설가 3명, 극작가 3명, 수필가 2명, 전기작가 1명, 문학사가 1명), 철학분야 6명(철학자 4, 사상가 2), 과학분야 3명(과학자 1, 물리학자 1, 생물학자 1), 수학 2명, 역사가 1명, 판사 1명, 모럴리스트 1명, 음악 1명, 조각가가 1명이다. 프랑스에서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은 독서와 관련이 많은 사람인 문학분야 사람들이 59%로 가장 많으며, 철학분야 15%, 과학분야 8%이며 수학자 등 기타가 18%이다. 문학분야 사람 중에는 비평분야가 22%로 제일 많고, 시인과 작가가 각각 17%이며, 다음으로 소설가와 극작가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인 7명을 주요 직종별로 분류하면 총 15개 분야 중에 문학분야 6명(시인 2, 소설가 1, 극작가 1, 비평가 1, 작가 1), 과학분야 3명(과학 1, 물리 2), 철학자 2명, 정치가 1명, 사

회학자 1명, 경제학자 1명, 교수가 1명이다. 독일에서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40%로 가장 많고, 과학분야가 20%이며 철학자가 13%, 정치가 등 기타가 27%이다. 문학분야 중에는 시인이 3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리이스, 로마 등 기타 국가인 8명을 주요 직종별로 분류하면 총 13개 분야 중에 문학분야 6명(시인 2, 소설가 1, 문필가 1, 작가 1, 극작가 1), 철학분야 3명(철학 2, 도덕철학 1), 종교분야 2명(신학자 1, 수도사 1), 정치가 1명, 법학자가 1명이다. 기타 각국에서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46%로 가장 많고, 철학분야가 23%이며 종교분야가 15%이다.

#### 4. 3 名言을 말한 사람의 業績과 活動

조사된 명언을 말한 미국인의 업적 및 활동을 보면 7대에 걸친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초절주의의 대표자로 『일기』, 『수필집』, 『자연론』, 『아메리카 학도』 등의 저서를 남긴 에머슨, 어려서 인쇄소의 견습공으로 일하고 후에 신문계에서 활약하였으며, 여러 방면에 재능을 발휘하여 성공하기도 하였고, 1750년에는 필라델피아 주의원이 되었으며 1775년에는 미국 독립선언 기초 위원이 되기도 하였고 번개를 연구하여 피뢰침을 발명, 저서로는 유명한 『자서전』이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파리에서 빈궁하게 생활하면서 대담한 성묘사로 주목을 받은 『북회귀선』을 썼고 필생의 대작인 『장미빛의

십자가』를 집필한 밀러, 4세 때 부친을 잃고 편모 슬하에서 자라며 음울하고 고독한 성격이 형성되었고 후에 세무서 관리, 영국 주재 영사를 역임하였으며 작품으로 단편집 『구목사관의 이야기』, 『눈사람』 외에 『일곱 박공(樛栱)의 집』, 『대리석의 목양신(牧羊神)』, 『주홍글씨』등을 남긴 호오돈, 가제트·트리분지의 특파원으로 각국을 여행하였으며 『트리분 초보독본』, 『서방시론』, 『새빈농장의 산울림』외에 『리틀 보이 블루』 등의 동시로 유명한 유진 필드, 시인·수필가이며 자연주의자로 호수가에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였으며 『일기』, 『월든 숲속의 생활』, 『존 브라운 대위의 변호』 등의 작품을 남긴 도로우, 미국의 미네소타·칼럼비아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프라그마티즘의 대표자이며 신교육 운동과 대학의 자유 및 정치 개혁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학교와 사회』, 『사고법』, 『철학의 재건』, 『민주주의와 교육』, 『경험 예술』, 『탐구이론』 등의 저서가 있는 듀이, 산문시와 추리소설의 대가이며 시집인 『중』, 『까마귀』, 『유니카』 소설인 『검은 고양이』, 『어셔가의 붕괴』, 『모르구가의 살인 사건』, 『풍뎅이』 외에 『사상의 철학』, 『시의 원리』 등이 있는 포우, 정규 학교 교육없이 어머니의 지도로 독학하여 16세에 전신기 발명 이후 전등·발전기·축음기·영화·전지 등 1300여종을 발명한 에디슨, 시인이며 문필가로 많은 시를 남긴 콜턴, 웨이커교의 개척자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웠으며 웨이커교 관계 설교 및 저술로 수차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열열히 종교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저서로 『윌리엄 펜 전집 : 양심 자유의 원인』을 남

긴 펜, 1907년에 유럽에 건너가 런던, 파리, 이탈리아에 전진, 이미지즘, 불티시즘 등 신시운동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고 엘리엇, 제임스, 타골 등 위대한 문학가를 발굴하였으나 제2차대전 중에 무솔리니를 지지하여 46년에 전범으로 체포되어 정신병자로 진단, 입원하였다가 58년에 방면되었으며, 시집으로 『페르소나』, 『칸토즈』, 『꺼진 빛으로』, 『환희』 등이 있는 파운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인쇄공·신문기자·편집원 등으로 전전하다가 생활의 체험을 소재로한 작품을 남긴 작가가 되었으며 『툼소여의 모험』, 『학클베리 편』, 『미시시피강의 생활』등을 쓴 마야크 트웨인, 방송극과 『몇 명이든 놀 수 있다』 등의 비평을 남긴 패이디먼이 있다. 또 칼럼비아와 시카고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서구 명저전집(전54권) 편집에 참가하였으며, 1952년에 미국철학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역임하였고, 『독서법』, 『변증법』, 『철학의 조건』, 『우리들의 시대』 등의 저서가 있는 애들러가 있다. 조사된 명언을 말한 영국인의 업적 및 활동을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고, 미술평론가·수필가로 사회 개량 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저서로 『근대화론』 5권, 『건축의 7등』, 『베니스의 돌』, 『들 감람나무의 관』, 서간집으로 『영국 노동자의 편지』 등을 남긴 러스킨, 런던에서 출생하여 기독교 교인이 된 후 1817에 세례를 받았으며, 문학에 흥미를 가져 26년에 처녀작 『비비언 그레이』를 발표, 풍자소설 『젊은 군주』를 발표하여 성공하고, 후에 심리소설, 정치소설을 발표하였고, 32년에 정계에 들어갔으나 몇 차례 낙

선하고 37년에 토리당원으로 하원의원에 피선, 3차례의 내각의 재무상에 역임하였으며, 정치 소설을 많이 남긴 디즈레일리, 국회의원을 지낸 후에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고 남작을 받았으며 소설 『폼페이 최후의 날』, 『리엔지』, 희곡 『금』 등의 작품을 남긴 벌러 리튼, 어렸을 때 가운이 몰락하여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희극역 배우·극작가로 성공하였고 희극인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한 소동』, 『12야』, 희극시인 『비너스와 아도우니스』, 영시 최대의 『소네트집』, 4대 비극인 『햄릿』, 『오델로』, 『맥베드』, 『리어왕』 등을 남긴 셰익스피어, 시인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졸업은 못했고, 20세나 연상인 부인과 결혼하여 사숙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가난과 병으로 고생하였다. 풍자시 『런던』, 『덧없는 소망』 등으로 명성을 얻었고, 1755년에 처음으로 『영어사전』을 만들었으며, 18세기 영국문학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불리는 사무엘 존슨, 에든버러 대학에서 배우고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왔으며 특히 사무엘 존슨에 경도되어 전기문학에의 걸작인 『사무엘 존슨전』을 썼고, 방대한 『사기』, 『일기』 등을 남기고 충실하고 숭배할 만한 전기작가로 변호사를 역임한 보즈웰, 케일리에 이어 불변식론을 개척하고 유크리트 기하교육에 반대하였으며, 77년에 도미하여 미국 수학기계를 육성하였고, 저서로 『수학논집』이 있는 실베스터,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로 근대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중의 한사람이며, 웨스터민스터 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철학 정치 종교를 배우고 특히 과학·의학을 연구하였고, 국가가 개인

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주장은 몽테스큐와 루소 등의 18세기 사상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존 로크, 시인이며 비평가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작품으로 평집인 『에트나 산상의 엠페도클레스』가 있고, 『새로운 시집』, 『켈트문학의 연구』, 『문명과 독단』, 『미국의 문명』, 『우정의 화륜』, 『문화와 무질서』 등이 있는 아놀드, 소설가이며 작품으로 『톰텀대왕』, 『아멜리아』, 『톰조운즈』, 『여러가지 가면의 사랑』 등을 남긴 필딩, 작가·사회개혁가로 『자존론』, 『검약』 등의 작품을 쓴 스마일즈, 미술 비평가에서 수필가·시인으로 전향하여 탁월한 착상과 예민한 논봉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브라운 신부를 주인공으로 한 연작 탐정 소설로 유명한 체스터튼, 역사가이며 옥스퍼드 대학을 중퇴하고 로잔에서 켈빈파의 교육을 받았으며 후에 하원의원을 지냈고, 저서로 『로마제국 쇠망사』 등이 있는 기번, 국무대신을 지낸 정치가이며 산문 발달에 공이 큰 조셉 애디슨, 작가이며 런던 우체국 관리로서 얼마 뒤에 아일랜드의 우편부 부감독을 역임하였으며, 사냥을 즐겨하였고, 『숲지기』를 비롯하여 6편의 소설이 있는 트롤러프, 미국 태생의 영국 문학가로 『추상』, 『세익스피어를 읽으면서』 등의 작품을 남긴 스미드,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퇴한 뒤 뉴우질랜드에서 목양업으로 성공하였으나 다시 돌아와 풍자 소설 『에리퀼』을 익명으로 출판하여, 영국인의 위선과 타협적 태도를 통렬히 공격하였으며, 정신적 자서전인 『만인의 길』을 써 당대의 종교적 도덕에 반항한 버틀러, 1차대전

전후의 대표적 소설가로 프랑스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 많으며 『노부 이야기』, 『명물 사나이』, 『명예』 등의 작품을 남긴 베네트, 교육자이며 독서에 관심이 많아 『독서의 기술』을 쓴 위크, 『서적벽의 해부』라는 글을 쓰고 수필가이며 편집자인 잭슨, 역사가이며 저서로 『충고하는 친구』를 남긴 헬프스, 의학을 공부하다가 문학으로 전향하여 일류작가가 되었고 195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설 『람베드의 라이자』, 『인간의 굴레』, 『달과 펜스』, 『과자와 맥주』, 『면도날』 희곡으로 『훌륭한 사람들』, 『순환』 등의 작품을 남긴 몐, 영국의 정치가이며 위그당 의원으로서 왕권에 대한 의회의 권리를 지키는 온건하고 공정한 정론을 펴서 중진의원으로서 성장, 저서에 『현대 불만의 원인을 논함』, 『프랑스 혁명의 회고』, 『미학론』 등이 있는 버크, 에딘버러를 졸업한 후 변호사를 하다가 문학에 전향, 시집 『마미언』, 『호상의 미인』, 『로크비』, 소설 『웨이벌리』, 『가이매너링』, 『럽로이』, 『감옥』 등의 저서가 있는 스코트, 고전경험론의 창시자로 학문의 『권위와 진보』를 저술한 베이컨, 정치가·문필사·웅변가이며 수상을 지내고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세계 제2차대전 회고록』으로 노오벨 문학상을 수상한 처어칠, 노팅엄 대학 졸업 후 교원 생활을 하고 『백공작』, 『아들과 연인』, 『무지개』, 『사랑하는 여인들』, 『차털리 부인의 사랑』 등의 작품을 남겼고 현대문명 반발과 성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로렌스, 1825년 이래 20년 동안 『에딘버러』 평론에 기고한 평론가로 하원의원을 역임하였고, 저서에 『고대 로마 서사시』, 『영국사』가 있는 마콜

리, 정치가·법학자·사학자·작가인 그는 정치적 심리를 좌우하는 인간적 요소를 사회학적으로 파악하였고 법학상에는 비교법적 방법을 사용한 제임스 브라이스, 저술가이며 정치가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문필생활을 하였으며, 사상가에 대한 평론으로 철학계의 1위이며, 아일랜드 청장, 인도 청장을 역임하였고, 문필 생활로 여생을 보내다가 『글래드스톤전』, 『문학연구』, 『비평잡기』, 『회심기』 등을 저서로 남기고 빅토리아 총장을 지낸 존 모올리, 정신병자인 누이 메리(Mary)를 간호하며 극과 문학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아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평형 감각과 유우머에 능하여 영국 수필문학의 최고봉인 『세익스피어 이야기』를 누이 메리와 함께 지었고 『엘리어 수필집』 등을 남긴 램, 수필가이며 정치가이기도 하고 더블린 출생으로 1707년에 「런던 가제트」의 주필을 지내고, 에디슨과 함께 잡지를 창간하기도 했으며, 풍기가 문란하고 퇴폐에 빠진 살벌한 사회를 유우머로 시정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며 에디슨과 함께 당시 산문계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던 스틸, 시인이며 수필가·극작가이기도 한 올리버 골드스미스, 철학자·사회학자이며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병약하여 학교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가정 교육을 받았는데 후에 철도기사, 이코노미스트 지 편집을 맡았고 영국 경험론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물학적 진화사상을 원리로 하여 종합철학 체계를 편찬하여 사회학에서는 사회유기체설, 심리학에서는 의식의 진화과정, 윤리학에서는 공리주의를 인정하였고, 기본 사상이 70년대 다아윈설의 보급에 따라 놀라운 영향을 끼친

스펜서가 있다. 또 현대 분석 철학의 대표적 철학자이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수를 역임하였고, 그의 저서 『논리학적 철학적 논문』은 비인학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현대 영미의 분석적 철학에 절대적 영향을 준 비트겐슈타인이 있다. 조사된 명언을 말한 프랑스인의 업적 및 활동을 보면 루이 14세 말기의 특이한 모달리스트인데 파리에서 출생,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률을 배운 후 파리 고등법원 변호사가 되었으며, 『각종의 사람들』, 『정숙주의에 관한 대화』를 저술한 라 브뤼에르, 처음에 인류학을 배우고 쥐미에즈 수도원에 관한 고고학적 논문을 발표하였고 『장바르와 Jean barois』, 『대표작인 티보가의 사람들』, 12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마르탱 뒤가르, 프랑스의 강단 비평가이며 개인 연구가 대부분이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발휘하여 문학·연극정치 사회 도덕 등 광범위한 문제에 걸친 비평을 한 파계, 소설가이며 평론가·음악연구가이기도 하였으며 파리스범고등학교에서 배운 후 로마에 유학, 귀국 후 모교의 예술사 교수, 파리대학 음악사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극작을 시작하여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인도주의적인 작품을 썼으며, 특히 우수한 음악평론을 많이 썼고, 저서로 『신앙의 비극』, 『이리들』, 『당통』, 『베에토벤의 생애』, 『미켈란젤로의 생애』, 191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플라방, 보르도 출생으로 전형적인 카톨릭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처녀시집 『합장』으로 인정받고 『문동이의 키스』로 소설가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셈이며 『사랑의 사막』 아카데미 소설 대상을 받았으며 『살무사의 갈등』, 『어둠의 종말』 등



을 연이어 발표하여 후에 프랑스 문학의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195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모리악, 근세 철학의 시조로 투렌의 법관 귀족가의 출신으로 학원에서 수학하고 프와티에 대학을 졸업하고, 1626 파리에 서 수학 특히 광학을 연구하였으며, 『굴절광학』, 『기상가』, 『제일철학 성찰』, 『철학의 원리』 등을 집필하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철학의 근본 기초라고 설명한 데카르트, 판사·법원장을 역임하고 유럽정세를 풍자한 서한 형식의 글인 『페르시아인의 편지』로 유명해졌으며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여 『로마 성쇠의 원인에 관한 고찰』,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 비평가이며 시인인 그는 몽테뉴의 전통을 이은 모럴리스트, 독자적인 역사적·심리적 방법을 가지고 근대비평을 확립하였고, 시집인 『조세프 들로름의 생애, 시, 사상』, 소설인 『애욕』을 남겼고, 비평의 대상으로는 작가, 학자, 비평가 등 1천명에 달하며 1865년에는 상원의원을 하기도 한 생트 베브, 1차대전 중군 경험인 『브랑블랭의 침묵』으로 데뷔하였고 『셀리전』, 『영국사』, 『미국사』, 『프랑스사』, 『생활의 기술』, 『사랑의 풍토』, 『바이런 전』, 『위고전』 등의 작품을 남긴 모르와, 법률학을 공부하고 고등법원에서 근무하였고, 후에 출생지의 시장을 역임하고 『자연신학』을 번역하는 등 독서와 집필 생활을 하였으며 수상록을 써 유럽의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끼친 몽테뉴, 16세에 『원추곡선시론』을 발표하였고, 확률론을 창시하였으며, 물리학 고전인 『유체의 평형』, 『대기의 중량』 등 외에 『시골 친구에게의 편지』, 『명상록』 등이

있는 파스칼, 상징파 시인으로 『주사위 던지기』, 『헛된 소원』, 『시여물』, 『바다의 미풍』, 『반수신의 오후』, 『소요유』, 『현대고답시집』, 『에로디아드』 등의 저서가 있는 말라르메, 문예의 모든 분야에 만능적 재능이 있어 선구적인 계몽 운동에 일신을 바치고 루소와 더불어 프랑스 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한 사람이며 당시의 종교와 정치를 비판하였고 장편 시인 『앙리아드』, 역사서인 『샤를르 12세사』, 『풍습론』, 철학서인 『철학적 서한』, 『관용론』, 『철학적 사전』 등 90여편의 저작을 남긴 볼테르, 칸에서 출생하여 40년 까지 신문 잡지 등의 기자 생활을 하다가 문필생활을 하였고, 처녀작 소설인 『수수계끼의 사나이 토마』, 『아미나다브』는 반리얼리즘으로 주목을 끌었고 평론집 『헛디딤』에서 독백의 비평형식을 확립하였으며, 평론집으로 화염의 문학, 문학공간, 소설로 죽음의 선고, 마지막 사람, 기다림을 잇는 것 등이 있는 블랑쇼, 영국에서 수학과 물리를 공부하고 뒤에 동물학, 식물학 지학으로 바꾸어 왕립 식물원장이 되었고, 저서 『박물지』에서 생물의 진화, 지구의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한 뷔퐁, 프랑스의 문학사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문학사에 관한 저서를 남긴 가이 미쇼, 근대 조각 사상 제1의 조각가로 파리에서 가난한 관리의 아들로 출생, 미술·공예 실기양성교에 입학, 카르보에게 배우고 관립미술학교 입학 시험에 낙제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조각가의 조수 생활을 하였으며, 24세 때 최초의 걸작인 『코가 망그러진 사나이』를 출품하였으나 낙선, 후에 도나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고, 벨기에에 체제 중에 대

작인 『청동시대』를 발표, 유명하게 되었다. 미켈란젤로 이후의 최대 거장으로 예리한 사실의 기법을 구사하여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약동을 표현하려고 하고, 근대 조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작품으로 『지옥의 문』, 『입맞춤』, 『생각하는 사람』, 『걷는 사람』 등 많은 초상과 조각을 남긴 로댕이 있다. 조사된 명언을 말한 독일인의 업적 및 활동을 보면 은행가의 아버지와 작가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으며 염세주의 경향은 니체에게 영향을 주었고 『시각과 색체에 대하여』,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의 저서를 남긴 쇼펜하우어, 독일의 최대 시인이요 정치가이기도 한 그는 변호사를 개업하기도 했으며 목사의 딸을 연모하여 많은 서정시를 썼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희곡 『철수의 괴짜』, 『빌헬름 마이스터』, 극시인 『파우스트』 등을 남긴 괴테, 괴팅겐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리히텐베르크 도형을 연구해 냈고 『괴팅겐 수진 연감』 발행, 자연과학 및 통속 철학에 관한 평론을 발표하여 계몽적 역할을 하고 잠언 작가로 알려졌으며 작품으로 견문기인 『영국소식』 등 많은 저서와 서간집이 있는 리히텐베르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격렬한 그리스도교 비판자,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피안』, 『우상의 황혼』, 『이사람을 보다』, 『권력에의 의지』 등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니체,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그는 하이델베르크·베를린·괴팅겐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경제사·종교사·사회학·사회학 일반에 관한 유명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고 학문적 활동이 매우 폭이 넓어 근대의 가장 위대한 사회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막스 베버, 바바리아 지방의 울름에서 출생한 그는 물리학자로서 어릴 때부터 수학적 재능이 우수하였고, 아버지의 실패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이사하여 그 곳에서 공부하였는데 수학과 물리학에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16세에 운동체의 광학」에 착안하고 있었고, 대학 졸업 후에 특허국의 기사가 되었고, 『물리학 연보』에 『광양자설』, 『브라운 운동에 관한 기체론적 연구』, 『특수 상대성 이론』 등의 논문을 발표,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프라하 대학, 쾰리히 공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였으며 1933년 나찌스에게 추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 원자폭탄 제조로 2차대전을 앞당기게 한 물리학자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 시인이며 부친은 목사이고 어려서 수도원 부속학교를 중퇴한 후 시계공·서점원 등으로 일하면서 바젤대학에서 청강하였으며, 신낭만주의적 경향의 작가로 출발하여 후에 내면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동양정신의 신비적 전일성에 동경하여 혼의 자유와 인간성의 고귀함에 고민하였고, 후에 스위스에 귀화하여 자전소설 『데미안』과 『시다르타』의 작품이 있고, 토마스만과 함께 현대 독일의 최대작가이며 46년에 노벨문학상 및 괴테상을 받은 헤르만 헷세가 있다. 조사된 명언을 말한 기타 국가인의 업적 및 활동을 보면 그리이스의 철학자이며 아테네의 석공 아들로 태어나 교육자로 자각하여 청년들을 교화시키기로

결심하고 정의·절제·용기·경건 등을 감화시켰으나 청년을 부패시켰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으며 그의 저서로 남겨진 것은 없으나 제자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등에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소크라테스, 로마의 정치가이며 작가·과학자로 『자연의 역사』, 『서간집』 등의 작품을 남긴 플라니우스, 러시아의 작가로 『파리의 함락』, 『제2일』, 『숨도 쉬지않고』, 『폭풍우』, 『제9의 물결』 등의 작품이 있으며, 『해빙』은 소련의 해빙 문학의 효시이다. 자서전으로 『인간, 세월, 생활』로 유명한 에렌버그, 러시아의 작가 사상가로 부유한 명문 귀족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와 사별하여 친척에 의해 양육된 후 카잔대학에 입학, 중도에 퇴학하고 고향에 귀환하여 농민 생활 개선에 진력했으나 실패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창작을 시작하여 잡지에 익명으로 자서전적인 처녀작 『유년시대』, 『소년시대』 등을 발표하여 유명해졌으며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문명의 열매』, 『부활』, 희곡으로 『산송장』, 『하지 무라트』 등이 있고 현재 많은 독자를 가진 러시아 최대의 작가인 톨스토이, 스위스의 철학자이며 법학자인 그는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법률을 배우고 런던과 파리에서 유학한 뒤 변호사·교수·국회의원·국제중재 재판소 위원으로 활약했고 인격과 학식으로 세계적인 명망을 얻었으며 저서로 『행복론』,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등을 남긴 힐티, 이탈리아인으로 많은 시를 남긴 고리아, 이탈리아 수도사이며 신학자인 그는 신학교수를 지냈고 수도사로서 떠돌아 다니며 신학교육을 하였으며,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하여 스콜라 철학을 대성한 중세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노르웨이 시인이며 극작가이고 남부의 소도시 시엔 출생으로 베르겐 극장 감독을 지냈고 스스로 해외 추방자가 되었으나 그것이 극작가로서의 활동 요소가 되었다. 형식에 있어서는 울어를 배격하고 산문극을 창시하였고, 내용에서는 부인·사회문제를 취급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극계에 혁명적 공적을 남겼고, 근대 연극의 아버지로 칭찬받고 있으며, 저서로 『양지바른 언덕의 연회』, 『브란』, 『페르퀀트』, 『인형의 집』, 『유령』, 『민중의 적』 등을 남긴 입센이 있다.

#### 4. 4 名言을 말한 사람의 活動 時期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미국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7-18세기 1명, 18세기 1명, 19세기 5명, 19-20세기 6명, 20세기 2명이다. 영국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6-17세기 2명, 17세기 1명, 17-18세기 2명, 18세기 1명, 18-19세기 4명, 19세기 6명, 19-20세기 14명이다. 프랑스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6세기 2명, 17세기 2명, 17-18 2명, 18세기 1명, 19세기 2명, 19-20세기 7명, 20세기 1명이다. 독일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8세기 1명, 18-19세기 2명, 19-20세기 4명이다. 그리이스, 로마 등 기타 국가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기원전 1명, 1-2세기 1명, 13세기 1명, 19-20세기 5명이다.

#### 5. 結 論

독서에 관하여 조사된 서양 명언이 미국 27개, 영국 59개, 프랑스 26개, 독일 18개, 기타 각국 8개로 총 138개인데 그것을 국가별로 분류하여 내용과 말한 사람의 국적 및 직종·업적 및 활동·활동시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조사된 138개의 서양 명언 속에는 독서 의의 41개(30%), 독서 방법 61개(44%), 독서 효용 18개(13%), 독서 가치 16개(12%), 독서 즐거움 2개(1%) 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국인이 말한 27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은 독서 의의가 5개(19%), 독서 방법 12개(44%), 독서 효용 5개(19%), 독서 가치 5개(19%)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래된 책 유명한 책을 읽으라. 독서에는 창조적 독서가 있고 지식인은 많이 읽으며 존경을 받는다. 독서는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독서는 밥 먹고 운동하는 것과 같다. 독서애호가들은 즐거움을 향상시켜 주는 독서 취미를 실천한다. 훌륭한 독서는 고상한 행동이다. 독서는 미지를 개척하는 탐험이다. 많이 읽을수록 독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독서는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지나친 독서는 마음의 압박이다. 인생의 경험을 쌓지 않고서는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 독서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양시킨다.

영국인이 말한 59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은 독서 의의가 13개(22%), 독서 방법 27개(46%), 독서 효용 9개(15%), 독서 가치 8개(14%), 독서 즐거움 2개(3%)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은 짧다.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구

입하라. 독서는 저자의 사상에 파묻히려는 것이다. 독서하는 데는 기술이 있다. 목적이 없는 독서는 산책이다. 한 권밖에 읽지 못한 사람을 경계하라. 과학은 새로운 책, 문학은 오래된 책을 읽으라. 좋은 책을 읽는 독자는 좋은 작가만큼 드물다. 독서와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추어진다. 모든 기초는 독서에 의하여 안정시켜야 한다. 진실로 읽고 싶은 소망과 호기심이 있는 책을 읽으라. 독서는 흥미가 이끄는 대로 하라. 하루에 5시간 독서하면 박식하게 된다. 독서만하고 사고하지 않으면 먹기만 하는 대식가와 같다. 독서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고의 힘이다. 늙어짐에 따라 생활의 가치는 생활 중의 독서의 유무에 달려 있다. 훌륭한 작품은 읽을 때면 보물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라. 부질없이 독서하는 것은 심신 수양과 품성을 고귀하게 하는 데는 무익하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읽은 책으로 판단된다. 책을 읽고 싶은 열의가 있는 사람과 읽을 만한 책이 탐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다. 인도의 보물을 준다해도 독서의 즐거움과 비꿀 수 없다. 독서 만큼 매력에 있는 것은 없다. 독서와 정신과의 관계는 운동과 육체의 관계와 같다. 독서습관은 순수한 즐거움이다. 생활보다 오히려 독서가 문제다. 우리가 독서할 것은 말이 아니라 숨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독서에 소비한 시간만큼 깊이 사색하는 해야 한다. 전력을 다한 독서가 훌륭한 독서이다. 2번 이상 읽히지 않는 책이 명저가 아니다. 무슨 책이든 사면 독서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천천히 읽는 법을 배우라. 오늘 읽을 수 있는 책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독서

는 사색을 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독서가에는 외우려고 읽는 사람과 잊으려고 읽는 사람이 있다. 즐거운 독서는 독자에게 책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읽어서 즐거운 책의 의미가 있는 책이다. 독서는 특징은 늙어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정신적 취미이다. 독서습관은 인생의 불행을 보호해 주는 피난처이다. 아침, 점심, 저녁 등 때에 따라 읽을 책이 있다. 독서는 생각하고 해야 한다. 읽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든다. 반대하거나 논박하기 위하여 독서하지 말라. 독서하는 목적에 따라 특징이 있다. 독서는 눈에 뜨인 것 부터 읽으시오. 독서의 기쁨은 몇 차례 계속 읽는 것이다. 재산, 명예, 권력보다 생애 중에 행복했던 때는 독서로 얻은 것이다. 저질의 책을 읽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한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다시 읽을 가치가 있다. 어떤 책이든 좋아 한다. 걷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서한다. 독서와 마음과의 관계는 운동과 몸이다. 좋은 책은 새 친구이며 다시 읽는 책은 옛 친구이다. 독서는 즐거움을 누리는 장기간의 사회적 결합이다. 독서는 천천히 하자. 읽고 표해 두고 배우고 마음속으로 소화시켜라.

프랑스인이 말한 26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은 독서 의의가 11개(42%), 독서 방법 11개(42%), 독서 효용 3개(12%), 독서 가치 1개(4%)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책을 읽는 태도에는 3가지가 있다. 잡서의 난독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이다. 독서의 첫째 기술은 천천히 하는 것이다. 독서의 적 중 하나는 인생 그 자체이다. 읽는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시사하여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책을 천천히 읽어 가는 묘미가 있다. 매일 30분이라도 사색하고 독서하라. 독서에는 우연이 없다. 책은 읽어야 가치가 있다. 독서는 과거의 사람과의 대화이다. 1시간의 독서로 어떤 슬픔도 경험하지 못했다. 독서는 권태로운 시간을 환희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비평가는 타인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불과하다. 아름다운 책을 읽는 것은 속삭임이며 영혼의 대화이다. 독서는 정신을 작용시키나 육체는 피곤하게 한다. 독서할 때 난해한 것에 집착하면 자기와 시간을 동시에 잃어버린다.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 독서는 문제를 제공하여 추리를 환기시키며, 판단력을 움직여 도움을 준다. 너무 급하거나 천천히 읽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아아, 만권의 책을 읽지 못한다. 그런데 육체는 슬프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읽는다. 성경을 진실로 공 들여서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독서는 작품이 작품으로 되게하는 행위이다. 글은 곧 사람이다. 훌륭한 예술가는 책을 읽듯이 자연에서 진실을 읽어 낸다. 독서는 하나의 재 창조이다.

독일인이 말한 18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은 독서 의의가 9개(50%), 독서 방법 7개(39%), 독서 효용 1개(6%), 독서 가치 1개(6%)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좋은 책을 읽기 위한 노력이다. 나쁜 책을 읽지 않을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은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한다. 계속하여 독서해야 읽은 내용이

남는다. 독서로 인해 우매하게도 된다. 악서는 읽으려 하지 않아도 접촉되고 양서는 읽으려 해도 멀어진다. 양서는 많이 읽을수록 좋다. 독서는 타인의 머리로 사색하는 일이다. 책을 사서 읽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고전을 읽으면 정신이 신선해지고 가벼워지며 마음이 맑아지고 고양된다. 독서하는 법을 배우려고 80년 동안 배웠는데 기본이 도 잘 배우지 못했다. 읽는 것은 빌리는 것이다. 한가하게 독서하는 사람을 증오한다.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신문과 현대작가들의 책만의 독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독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독서는 기분 전환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기타 국가인이 말한 8개의 조사된 명언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은 독서 의의가 3개(38%), 독서 방법 4개(50%), 독서 가치 1개(12%)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의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들여라. 많이 읽되 많은 책은 읽지 말라. 독서는 하나의 창조이다. 덮어 놓고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좋은 저자의 책을 골라 읽는 편이 유익하다. 나쁜 독서는 나쁜 교재보다 위험하다. 독서는 지혜와 사고력을 길러준다. 한 권 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용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을 읽어라.

독서에 관한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의 국적을 조사해 보면 총 83명 중에서 미국인 15명, 영국인 36명, 프랑스인 17명, 독일인 7

명, 그리스 1명, 로마 1명, 러시아 2명, 스위스 1명, 이탈리아 2명, 노르웨이 1명으로 국력이 강하고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이 많으며 영국 43%, 프랑스 20%, 미국이 18%, 러시아와 스위스가 각각 2%이고 그외 기타 국가는 각각 1.2%이다.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의 직종의 분야가 총 168개 분야인데 그 중에 문학분야 97, 철학분야 20, 정치가 13, 과학분야 7, 역사가 4, 종교분야 4, 수학자 3, 교육 2, 법학자 2, 사회과학자 2, 저술가 2, 저어널리스트 1, 자연주의자 1, 편집자 1, 변호사 1, 발명가 1, 사회사업가 1, 판사 1, 모델리스트 1, 음악가 1, 조각가 1, 경제학자 1, 교수 1명으로 문학분야가 전체의 58%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학분야가 12%이며 정치가 8%, 과학분야가 4%, 역사가와 종교분야가 각각 2%이며 그외가 8% 정도이다. 문학분야 중에는 시인과 작가가 24명인 25%, 소설가 19명인 20%로 시인과 작가, 소설가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된 명언을 말한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별로는 총 83명 중에서 기원전 1명, 1-2세기 1명, 13세기 1명, 16세기 2명, 16-17세기 2명, 17세기 3명, 17-18세기 6명, 18세기 9명, 18-19세기 6명, 19세기 22명, 19-20세기 27명, 20세기 3명으로 19-20세기가 33%, 19세기가 27%으로 양 기간이 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8세기가 11%이다. 특히 기원전부터 2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2명이 있는 것을 보면 옛날부터 독서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려출판사 편. 『세계명저대사전』, 대구 : 고려출판사, 1992.
- 고려출판사 편. 『세계인명대사전』, 대구 : 고려출판사, 1992.
- 고은 외.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 민음사, 1995.
- 국문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국어국문학대사전』, 서울 : 대제각, 1984.
- 공덕룡 옮김. 『영미수필선』, 서울 : 화경문고, 1986.
- 교양필독도서선정위원회 편.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 金京一. 『讀書教育論』, 서울 : 일조각, 1980.
- 김기철 옮김. 『엘리아 수필집』, 서울 : 문예출판사, 1976.
- 김영호 옮김. 『햇세 인생론』, 서울 : 문학출판사, 1992.
- 김영진. 『책한테 길을 물어』, 서울 : 현대문학사, 1986.
- 金源三. 『世界名作다이제스트 100選』, 서울 : 대완도서출판사, 1983.
- 김완기. 『讀書 教育實務百科』, 서울 : 한국교육출판, 1982
- 김효정의. 『독서의 힘』, 서울 : 구미무역(주), 1992.
- 나남출판사 편. 『해금수필 61편 선집』, 서울 : 나남출판사.
-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울 : 서문당, 1975.
-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 서울 : 경인 문화사, 1982.
- 범우사기획실 편. 『출판학 원론-범우 윤형두 선생 화갑 기념』, 서울 : 범우사, 1995.
- 안도섭. 『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서울 : 소나무, 1994.
- 安元洙. 『讀書와 人格陶冶』, 『부산교육』 211, 부산 : 부산교위, 1980.
- 안춘근. 『독서의 지식』, 서울 : 범우사, 1993.
- 양주동 편. 『세계명언대사전』, 서울 : 교육서관, 1992.
- 오세영·김영철. 『독서』, 서울 : (주)천재교육, 1996.
- 오인환 옮김. 『독서의 생활화』, 서울 : 구미무역, 1982.
- 이창배 옮김. 『에머슨 수상록』, 서울 : 서문당, 1975.
- 이휘영 옮김. 『독서술』, 서울 : 서문당, 1975.
- 장옥순·정석희 엮음. 『책은 읽히고 싶다』, 서울 : (사) 국민독서문화진흥회, 1995.
- 정필모. 『문헌정보학원론』,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1996.
- 진화당 편. 『지적 생산의 기술』, 서울 : 진화당
- 최혁순 옮김. 『쇼펜하우어 수상록』, 서울 : 범우사, 1995.
- . 『후세에 부치는 메시지』, 서울 : 학원사, 1987.
- 천혜봉. 『한국서지학』,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58, 서울 : 민음사, 1993.

한국출판학회 편. 『출판업무편람』, 서울 : 경  
인문화사, 1994.

학원출판공사 편. 『학원대백과사전』, 서울 :  
학원출판공사, 1994.

학원출판공사 편.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서  
울 : 학원출판공사, 1987.

尾原淳夫. 『독서지도통론』, 동경 : 학예도서  
(주), 1988.

Mortimer J. Adler and Charles Van  
Doren, 민병덕 역. 『How to Read a  
Book (독서의 기술)』, 서울 : 범우  
사, 1995.